



또 나눠 먹을 것인가?

탈출! '정치적 후견주의'

지배구조 개선, 왜 필요한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적장치를 확실히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주자 시절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았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전국언론노조와 KBS본부는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위의 기한이 5월 말까지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현행에서 진일보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 노보에서는 방송독립을 위해 왜 KBS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또 그 지배구조 개선이 우리 구성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 정치적 후견주의의 등장

KBS가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시달린 이유는 지배구조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KBS 이사회는 채워졌다. 여야가 KBS 이사를 나눠 먹기 하면서 이사회는 정치권의 복사판이 되었다. 한편으로 이사회 구성을 달리하면 특정 정치세력이 원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세울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낳기도 했다.

이런 관행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았던 옛 방송위원회의 위원 선임방식이 KBS 이사회에도 이식된 것으로 추정된다. 옛 방송법은 애초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각각 방송위원을 추천했는데, 2000년 대법원장이 빠지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은 3명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국회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추천했고, 정파적으로 여당이 방송위원회를 장악하게 됐다.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방송위원 추천에 간여하게 되면서 방송위원의 여야비율이 KBS 이사회에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 여야비율이 2003년 8:3에서 2008년 7:4로 변화한 것도 국회 여야비율 변동이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가 드리우게 된 배경이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정치적 후견주의 극복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구체적으로 ① 여당의 이사회 장악구조 완화 ② 이사 선임요건 강화 ③ 사장 추천에 합의제 요건 도입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간여하는 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향

1. 여당의 이사회 장악 구조 완화
2. 이사 선임 요건 강화
3. 사장추천 합의제 요건 강화

우리나라처럼 양당체제가 굳어진 국회는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 반영에 한계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주장이 나온 것도 양당체제인 국회의 의석 분포가 실제 정당 지지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고해진 양당체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반영되면, 정치 교체에 따른 여야 교대 속에서 이사회는 정권 옹호와 비판을 둘러싸고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적 후견주의' 벌거벗은 임금님과 정치병행성

강형철
숙명여자 대학교 미디어 학부 교수

2018년 9월 KBS 제11기 이사회 첫 회의에 김태일 이사(현 장안대 총장)는 이사회 운영의 파당성 배격을 주문했다. “추천의 경로는 정파적 성격”이었더라도 역할의 엄중성을 고려, 이사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당 추천으로 이사가 된 분의 말에 이사 대부분이 공감의 뜻을 표했고 이후 이사회의 주요 지향점이 됐다.

함께 이사가 된 나는 그 자리에서 이를 위해 먼저 운영위원회 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운영위란 이사회 내에서 일종의 간사 역할을 하는 이사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것의 실행은 추천경로의 정파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운영위 이사는 ‘관행적’으로 이른바 ‘다수’ 이사 중 1명, ‘소수’ 이사 중 1명이 선임된다. 여기서 다수, 소수란 법규에 없는 ‘관행적’ 용어로서, 각각 정부여당 추천경로와 야당 추천경로를 말한다. **법상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정부여당 지분이 7명, 야당이 4명이다.**

이 관행들은 한국 정치 시스템을 공영방송에 이식한 것이다. 이것을 ‘정치병행성’(political parallelism)이라고 한다. 국회 상임위에 여야 간사를 각각 두듯이 공영방송 이사회 내에 여야를 대표하는 운영이사가 있다는 것이 정치병행성의 극명한 모습이다. 운영이사는 정파 양측을 대표하며 의사와 의결을 경합, 협상하며 주고받기한다. 합의정신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일이다. **선진국 어느 공영방송 이사들이 당을 지어 협상하는가. 아니, 민간 기업이라도 이사들끼리 당을 짓는 곳이 있다면 경쟁력 저하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말 것이다. 세계 방송학자들이나 공영방송인들이 알면 놀랄 일이다.**

정치권은 시청자가 아닌, 자신들의 이해 대변인을 이사로 ‘파견’할 수 있다. ‘당론’을 따르지 않는 그는 비난받고 추천에 개입된 연줄이 동원돼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후견주의의 비루한 모습이다!** 여기에 후견주의라는 표현을 쓰기엔 너무 고상하다. 전문인일수록 파견인임을 거부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자생력 있는 ‘넘버 원’이나 ‘넘버 투’가 아닌 “칼질해야 살아남는” ‘넘버 쓰리’를 보내려는 동인이 생긴다.

정파화는 부실 경영의 한 원인이 된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싸려는 **여권 이사와, 반대로 현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야권 이사가간 투쟁장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경영 논의가 아니라 KBS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선전장으로 이사회가 활용된다. 여당은 행정부 비호로 권력 재창출을 꾀하고 야당은 정권 흔들기로 권력 탈환을 노리는 대한민국 정치현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고스란히 병행되고 있다. KBS와 시청자에 득 되는 정작 중요한 의제는 소홀하게 되고 경영진의 책무성을 강화할 시간은 흘러가게 된다. 경영진 측에서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사회를 보도하는 언론도 “공방을 벌였다”라고 하는 관행적 기사가 쓰기도 쉽고 주목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법과는 무관한 결길이 굳어지면 관행이 ‘제도화된 비제도’가 된다. 이

관행 주변에 각종 이해세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후에 시도하는 공적 제도변화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개혁은 관행 타파의 인간 의지가 더 중요하다. 제도에 대한 구성주의론(Constructivism)은 사람들 머릿속 생각, 즉 ‘인지적으로 구성된 바’에 따라 제도가 현실에 구현되는 모습이 달라진다고 본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원래 정파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자식들이 알면 부끄러워질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사회를 국회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으로 그리고 있다면 국회의원의 정파적 행태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같은 일도 정파 이해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뀐다. 이사들이 때로는 무례한 언사로 피감기관 추궁하듯 경영진을 몰아붙인다. 반대로, 상식적 정의대로 “이사회는 임원들의 회의체로서 KBS의 성과에 책임지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사와 경영진이 머리를 맞대고 성과 창출을 위해 함께 고민할 것이다.

“벌거벗었다!”라는 어린아이의 외침처럼, 사례 하나가 모두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제도 변화는 인간 의지에 따른 대안적 행위 사례의 축적이 중요하다. 지난 이사회에서 국민의힘 추천 서정욱 이사(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야당 추천으로 이사회에 들어왔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고민한 결과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방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며 찬성 표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론은 이전의 어떤 야당과도 마찬가지로 인상 반대였다. 그가 받은 압력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러나 그는 병행성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임을 보여주었다.

11기 이사회 전반기 2년은 운영이사를 2명이 아닌 4명으로 늘려 정파 대표성을 완화했다. 이어서 2019년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돈다”라는 조항을 “둘 수 있다”라고 고쳤다. 원칙지는 운영위 폐지였으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표현만 바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개정 조항을 근거로 남은 2년간은 운영위를 두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사들 모두가 함께 모여 운영을 논의하느니 일부 이사에게 몰릴 알량한 권력을 민주화하고 정파 패러다임도 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가 기존 패러다임을 고수하고자 하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한 논문에서 ‘악인의 지렛대 역할’론을 말하면서 “심각한 문제는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기꺼이 악당 역할을 하려는 자가 있으면, 그로 인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비타협적인 이데올로그”, “정당의 논공행상 대상자”, “다른 활동이 없이 공영방송 이사가 주요 경력이 되는 자” 등이 자리를 차지할 경우 이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제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 변화는 머릿속 논리가 아니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야 추천 달라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야 균형을 맞춘다고 숫자를 늘리면 정파 대리인만 늘어날지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들이, 경영진이, KBS 종사자들이, 그리고 KBS 밖 관련인들이 이사회에 대한 인지적 구성을 먼저 바꾸고 그것을 주류화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의 현장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란
우리가 일하는 스튜디오, 편집실, 뉴스룸, 취재 현장 등
곳곳의 관계들을 최상위에서 결정하는 권력관계다."

김동원
한국 예술 종합 학교 영상원 강사

캐나다 퀘벡 대학의 생물학 교수였던 캐런 메싱(Karen Messing)은 1980년대 노동조합 안전보건 자문역을 맡으며 경험했던 의학과 노동현장의 차이를 '공감격차'라고 불렀다. 학자나 판사처럼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노동과 삶을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서로 다른 지위의 사람들이 같은 삶을 경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 판사, 과학자처럼 자신의 생계수단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직업이라면 공감은 중요하다. 방사선 분진이 가득 찬 공장 작업라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의사는 노동자가 앓고 있는 질병을 진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인을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처방은 할 수 있지만 예방을 할 수 없는 의사, 때로는 잘못된 처방을 내려 병을 더 악화시키는 의사를 만난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의 팀장, 부장, 국장에게서 이런 의사의 모습을 엿보기란 어렵지 않다. 갑작스런 편성 변경, 사전 논의가 없던 기사 아이템, 무슨 업무를 맡았는지 모를 부서 신설에서 납득하기 힘든 인사 발령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의 통보 또한 공감격차라고 부를 수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공감격차는 각 실국장, 본부/센터장을 거쳐 사장에 이르기까지 '윗선'의 결정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고를 우리에게 감당하게 만든다. 이런 노고는 규모가 크고 본부 및 부서 간 칸막이가 두터운 관료제 조직일수록 더 무겁게 다가온다. 물론 입사 후 십여 년이 지나고 일정 직급에 오르면 이런 노고조차 느끼지 못한다. 공감격차는 이렇게 반복되고 사라지지 않는다.

달리 보면 공감격차는 사람과 사람 사이 경직된 관계에서 비롯된다. 결정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과 같은 역할 구분이 우리 모두의 관계를 구성한다. 문제는 이 관계들이 각종 규정으로 굳어져 당연하게 여겨질 때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계가 바로 '구조'다. 몇 십 년도 넘게 KBS를 비롯한 한국 공영방송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배구조라는 용어의 '구조' 또한 이렇게 제도화된 관계를 뜻한다.

정확히 말해 언론노조 KBS본부의 조합원인 우리 각자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관계로만 규정될 수 없는 존재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며, 누군가의 이웃이자 고객이고, 누군가의 채무자이기도 한 다양한 관계가 '나'를 규정한다. 우리에게 무수한 관계 중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를 꼽으라면 대부분 생계가 달린 공영방송 노동자-경영진의 관계를 들 것이다. 다양한 관계 중 이 관계가 단절되거나 변형되는 사건이 조직 개편, 인사, 징계, 해고, 이직 등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KBS본부 집행부 뿐 아니라 언론노조의 무거운 숙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결코 우리 현장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란 우리가 일하는 스튜디오, 편집실, 뉴스룸, 취재 현장 등 곳곳의 관계들을 최상위에서 결정하는 권력관계다. KBS 이사회 구성 - 사장 추천 - 경영진 임명 등으로 이어지는 관계망이 수십 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라는 여의도 정치의 세력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가 누군가에 따라 우리 삶의 다양한 관계 중 핵심 관계가 결정되어온 셈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구호는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기에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관례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현장에서 느끼는 공감격차를 생각해 보자. 팀장, 부장, 국장과 우리의 관계에서 느끼는 공감격차보다 더 심각한 공감격차는 공영방송 현장과 정치권 사이에 놓여 있다. 우리는 공감격차를 느낄 때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노고는 우리 몫이 아니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쏟아야 할 노고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시작은 몇 미터 앞 국회에 머물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던지는 현장의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당신들은 우리의 현장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질문을 던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함께, 더 큰 걸음


 본부장 편지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됩니다.

언론노조 KBS본부 7대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함께 더 큰 걸음'을 7대 출범식의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2017년 142일 파업 승리 이후 복귀의 슬로건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아직 길 위에 있습니다."였습니다. 파업 당시 외쳤던 '다시 KBS 국민의 방송으로'라는 지향점에 대한 실천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더 큰 걸음'은 결코 과거와 차별적인 유난스러움을 애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대 집행부의 임기는 초대부터 6대까지 걸어온 걸음의 연속이며 8대와 9대로 이어져갈 지난한 역사의 한 페이지일 것입니다. 7대 집행부의 임기 동안 방송독립과 노동존중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 함께 더 큰 걸음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 개선 투쟁은 방송독립이라는 오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KBS연구동 옥상에는 '방송독립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대형 걸개가 수개월째 걸려있습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기한이 5월말로 임박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의 최적기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척하고 시민 사회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비로소 '다시 KBS 국민의 방송으로'라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겁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음은 집행부 몇몇의 지략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조합에서는 퇴직하는 선배 조합원께 예우를 갖춰 황금열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KBS를 위해 헌신하시고 마지막까지 조합을 지켜주신 선배님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입니다. 당신들이 떠나신 자리에 신입사원들이 가입해 채우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굳건한 과반교섭대표노조의 위상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7대 집행부는 막 가입한 신규조합원부터 퇴직하시는 선배조합원분께 이르기까지 조합원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소통하며 우리의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 루쉰(魯迅)의 글귀를 공유하며 '우리 함께 더 큰 걸음'의 힘찬 첫 걸음을 제안 드립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위에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언론노조 KBS본부 7대 본부장 강성원

7대 집행부



김재만 | 수석부분부장

더이상 후회없게, 아쉬움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상현 | 지역부분부장

지역이 KBS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구 | 사무처장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의 이야기 잘 듣고 행동하겠습니다.



서병립 | 정책/공방실장

부끄럽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이정훈 | 소통부분부장 (조직총괄국장)

조합원분들의 한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김민회 | 노사총괄국장

열린 소통으로 조합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현 | 노사국장

참여와 소통, 행동으로 하나되는 노조가 되기를 꿈꾸며
조합원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김경진 | 교육선전국장

더 알기쉽게!! 더 친절하게 다가갈 방법, 고민하겠습니다!!



김대범 | 조직국장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고 의리로 뭉친
7대집행부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나은 | 공추위 TV

공방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하 | 공추위 R

위기의 순간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훈 | 복지국장

6대에 이어 7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수희 | 성평등국장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도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송현 | 감사

조합에 들어왔던 초심으로 애정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수 | 감사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대 중앙위원



조애진 | 시사교양2 구역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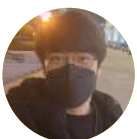
김은비 | 라디오 구역

라디오구역 식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중앙위원이 되겠습니다



김기범 | 스포츠 구역

입이 아닌 발로 뛰겠습니다.



정영민 | 음향디자인 구역

노조원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여
노조원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노조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구엽 | 뉴미디어아카이브 구역

조합원 모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최윤석 | 드라마구역 구역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재우 | 방송그래픽 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미 | 뉴스PD 구역

6대에 이어 7대에서도 중앙위원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악한 현재 상황에서 조합과 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4일 (목)



손형식 | 영상제작 구역

함께 가는 길이 언제나 든든합니다.



김혜진 | 국악관현악단 구역

조합원들의 뒷모습을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 훈 | 관현악단 구역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한걸음! 오르겠습니다!



한혜진 | 제작기술1 구역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에서 잘 소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춘 | 제작기술2 구역

언제든 조합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고아름 | 취재구역 구역

잘 듣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인석 | 예능 구역

없음



문원석 | 일반행정 구역

소통, 공감, 신뢰로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중앙위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우 | 정책연구기술 구역

다가가기 편안한 중앙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종복 | 방송인프라 구역

힘든 시기,
노조원들의 의견 청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지연 | 편성 구역

(여전히 우리 구역 중앙위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노조원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상원 | 보도영상 구역

쏟아지는 무관심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승원 | 아나운서 구역

레츠고!



송장섭 | 보도편집 구역

직종간 임금차별 철폐!

7대 지부장



김문영 | 강원영서 지부

I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이석구 | 강원영동 지부

조합원분들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중 | 대전충남 지부

사람을 아끼고 사람이 귀한 줄 아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김동욱 | 대구경북 지부

함께 하는 세상! 조합원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준석 | 부산울산 지부

조합원들께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조합의 문,
언제든 열어놓겠습니다.

이해수 | 충북 지부

지부 조합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유진휘 | 전북 지부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전북지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남정희 | 수신료 지부

조합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대변할지 무겁게 고민하겠습니다.

오달록 | 방송차량서비스 지부

7대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손자회사 철폐, 투쟁!

이동훈 | 지역콘텐츠동부 지부

지부 조합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유승용 | 광주전남 지부

노동조합은 중앙집중을 통해 강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분권'과 '소통'의 가치가 더 절실합니다!

이현중 | 지역콘텐츠서부 지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만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고무줄보다 더 질긴 인연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7대 집행부가 걸어 온 길

1월 7대 집행부 업무 시작!

0103 수신료구역 강북사업지사 간담회



0103 전태일 재단 방문



0112 TV-MD 조합원 간담회



0120 뉴스 PD 조합원 간담회



2월

0209 제 243호 노보 [인사만사 발행]



0214 경남지부 조합원 간담회



0215 예능구역 조합원 간담회



0215~0218 직원 외상 트라우마 상담센터 1차 운영

0220 임시 대의원 대회 (단체협약 잠정안 추진)

0222~0224 사망 조합원 관련 노무사 상담센터 운영

3월

0304 2022 단체협약 체결



0317~0318 직원 외상 트라우마 상담센터 2차 운영

0322 제 8회 공정방송 실천상 시상식



0325 2022년 1분기 정년퇴직 조합원 환송식

0328 스포츠구역 조합원 간담회



0329 제 120차 노사협의회



4월

0406 7대 집행부 출범식



0406 1차 집행위원회



0406 38차 정기대의원대회



언론노조 KBS 본부의 문은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있습니다.